

9월 지육시세는 3,600원/kg 예상

매년 7월 20일 이후부터 8월 10일은 여름 휴가의 절정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게 된다. 이러한 휴가 시즌에는 서울 도심의 인구가 대폭 빠져나가면서 식당들도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나 서울의 돼지고기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의 돼지고기 가격이 7월말 큰 폭으로 하락하여 7월 8일 지육단가 4,330원에서 불과 20일 뒤인 7월 28일에는 3,157원으로 1,173원 급락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돈가의 하락은 많은 양돈농가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전화를 해 돈가가 왜 이러냐고 문의를 해 왔었다.

올해의 돼지 지육가격의 큰 폭의 하락은 시장에서의 돼지고기 소비가 7월 10일 이후 복철 영양식 소비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게다가 여름 방학으로 학교 급식 시장의 소비까지 줄면서 갑자기 삼겹살의 소비가 뜸하여 육가공업체가 냉동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자 육가공업체까지 도축두수를 줄이면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삼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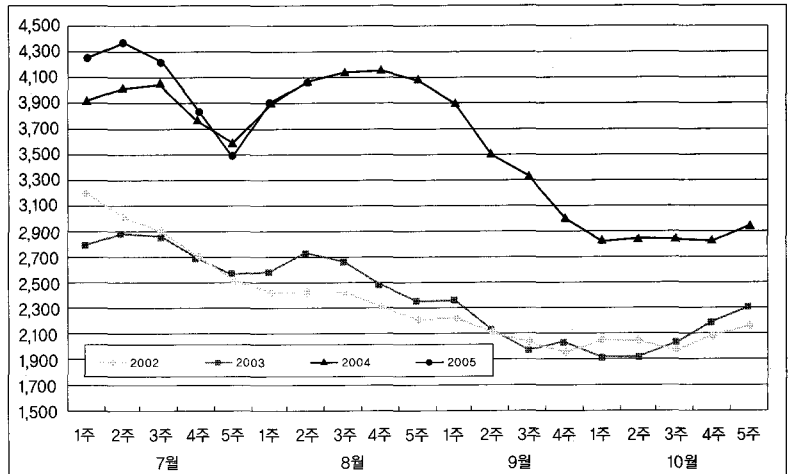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살의 수입 급증에 따라 시장에 삼겹살의 재고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많기 때문에 육가공업자와 중간상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돈육시장은 돼지 가격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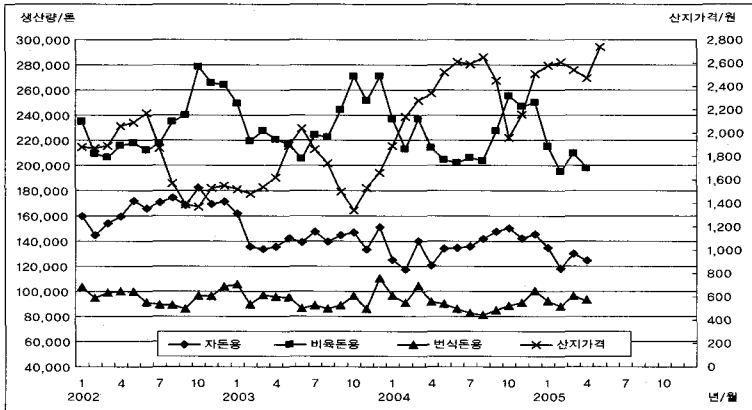
왜냐하면 돼지 가격의 큰 폭의 하락과는 반대로 7월의 전국 돼지 도축두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12.8%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4.6% 감소하여 979천두를 기록하였다. 출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격이 소비의 급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금년 7월까지 누계 돼지 도축두수는 약 7,637천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약 8.64%감소한 추세를 보여 돼지 출하두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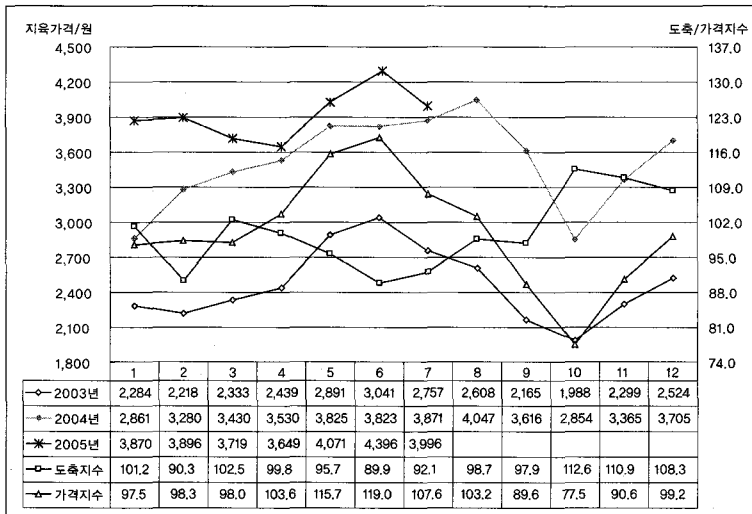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감소 추세는 금년도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하반기 돈육시장의 큰 흐름은 공급량은 돼지 사육두수 감소와 출하두수 부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8% 내외 부족한 추세를 보여 돼지고기 생산량으로는 약 4만톤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입량은 벌써 116,208톤을 기록하여 2004년도 1년간 수입량인 108,829톤에 약 106.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삼겹살의 수입량은 7월말까지 누계로 55,331톤을 기록하여 국내 생산량을 국내

도축두수에 두당 10kg을 계산하여 76,370톤으로 추정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금년 7월까지 자급률은 약 58%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금년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16만2천톤 정도를 기록하여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2만톤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9월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추석 2주전부터 하락하여 10월말까지 하락하는 모양을 나타내 왔다.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될까?

금년도 9월의 전체 시장의 분위기도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하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10% 감소하고 소비는 전년과 비슷하나 추석은 전년보다 10일 빨라

지면서 소비량은 전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수입량 중 특히 삼겹살은 국내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채워가는 추세로서 국내산 삼겹살의 가격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금년 9월 돼지고기 시장은 공급에서는 부족하고 국내산 부족분을 수입삼겹살이 보충하면서 소비에서는 본격적인 소비 감소 계절로 접어들면서 돼지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3,6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문**